

〈김씨남정기〉 글쓰기의 특징과 의의*

허순우** · 劉冬麗***

〈차 례〉

1. 머리말
2. 서사 단락 대비를 통해 본 〈김씨전〉과 〈김씨남정기〉
3. 〈김씨남정기〉 글쓰기의 특징 - 재현성과 보고성의 동반 강화
4. 의의-사실과 허구가 결합된 광의의 실기 쓰기

〈국문초록〉

〈김씨남정기(金氏南征記)〉는 18세기 조선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實事]을 기반으로 하여 기록된 조선 후기 산문이다. 노비 추쇄를 나섰던 김 씨의 남편 황 씨가 노비들에게 살해당한 후 아내 김 씨가 살인사건 해결을 위해 남정(南征)을 감행하며 동분서주한 이야기를 근간으로 한다. 주인을 살해한 노비들을 관에 고발했음에도 8-9년이 지나도록 옥사가 지연되어 김 씨와 그녀의 집안사람들이 고난을 겪은 정황을 세세하게 기록했으며, 해당 사건의 해결에 관계된 여러 관원의 행태와 활약 또한 자세히 기록한 작품이다.

동일한 사건을 간략하게 서술한 〈김씨전〉에 비해 〈김씨남정기〉의 서사가 확장 되었으므로 기존 연구에서는 〈김씨남정기〉를 재현성이 돋보이는 소설로 평가했다. 물론 〈김씨남정기〉에 재현성과 허구성이 들어 있지만, 이 작품이 근본적으로 지향한 글쓰기가 허구적 소설인가에 대해서는 재론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김씨남정기〉 글쓰기 방식의 특징을 살피고 이 작품이 지향하는 글쓰기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글쓰기 방식의 특징을 분석하기에 앞서 〈김씨전〉과 〈김씨남정기〉의 서사단락 대비를 통해 서사적으로 확장된 부분이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1저자: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제2저자: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무엇인지 검토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글쓰기의 특징을 살폈는데, 〈김씨남정기〉는 〈김씨전〉과 비교할 때 재현성과 보고성이 모두 강화되는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글쓰기 방식이 실기류와 유사하므로 〈김씨남정기〉를 광의의 실기류적 글쓰기를 시도한 작품으로 보고자 했다. 〈김씨남정기〉를 광의의 실기로 볼 때, 이 작품이 보고성을 강화하면서도 일부분 허구성을 취하게 된 까닭에 대한 이해도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김씨남정기〉는 고난과 복수의 과정과 극적인 복수의 묘사는 물론이고, 소소하면서도 인정이 살아있는 주변적인 존재들에 대한 묘사를 통해 김 씨의 고난과 회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작품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 실사(實事), 노비 추쇄, 살인사건, 재현성, 허구성, 보고성, 실기류, 공감

1. 머리말

본 연구는 18세기 초 조선에서 발생했던 실사를 소재로 한 작자 미상의 한문 산문 〈김씨남정기(金氏南征記)〉 글쓰기의 특징과 그 의미를 살피는데 목표를 둔다. 〈김씨남정기〉는 충청도 면천의 양반인 김 씨와 황 씨 부부가 전라도 영광에 있는 노비를 추쇄(推刷)하며 겪은 고난과 살인사건 해결의 과정을 상세히 기술한 글이다. 〈김씨남정기〉가 실화를 기반으로 하여 창작되었음은, 권이진(權以鎭, 1668-1734)의 문집에 수록된 〈김씨전(金氏傳)〉¹⁾과의 대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권이진이 김 씨 부부 사건에 관여했음은 그의 묘갈명(墓碣銘)²⁾, 그리고 채제공이 작성한 시장(諡狀)³⁾

1) 〈김씨전〉은 권이진의 문집인 『유회당집(有懷堂集)』 권11에 실려 있다.

2) “除靈光郡守 有殺主獄 奴有財 死者無親黨 一婦人 八季曳衰 不得決 得公而決” (오광운, 〈묘갈명〉, 『유회당집』 권12.)

3) “先是 靈光郡有叛奴戕其主 埋之屏處 奴多財力 獄久不決 主之婦徒步千里 至曳絰者八年 公莅靈 首訊得其情 皆杖殺之 裝爲遣其婦還 人服其剛嚴”(채제공, 〈자헌대부 호조 판서 권공 시장(資憲大夫戶曹判書權公諡狀)〉, 『번암집(樊巖集)』 권42.)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영광 군수 권이진은 8·9년 이상 이어지던 김 씨 부부 관련 옥사(獄事)를 자신이 1714년에 군수로 부임하자마자 매듭지었다고 〈김씨전〉에 기록했다.⁴⁾ 그는 〈김씨전〉을 쓰며, 사건의 경과를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남편을 살해한 노비를 벌하기 위해 긴 시간 노력한 김 씨의 의열(義烈)이 흔하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전 창작의 동기로 제시하였는데⁵⁾ 서사의 기본 뼈대가 〈김씨남정기〉와 같다. 따라서 〈김씨전〉이 기술된 후, 누군가가 전의 소재가 된 김 씨 부부 관련 사건에 살을 붙이고 허구성을 가미하여 〈김씨남정기〉를 기술한 것으로 생각된다.⁶⁾

선행연구에서 〈김씨남정기〉는 대개 〈김씨전〉과 함께 논의되었다. 〈김씨남정기〉를 학계에 처음 소개한 연구⁷⁾에서는 〈김씨전〉과 〈김씨남정기〉의 간략한 서사 단락을 대비를 통해 〈김씨남정기〉가 〈김씨전〉이 언급한 실사를 기초로 하여 창작된 작품임을 밝혔다. 또 작품에 등장하는 몇몇 실존 인물의 성명과 관직을 근거로 작품 창작의 상한선과 창작자의 소속 집단

4) 권이진의 연보에 따르면 그는 김 씨의 일을 해결한 해(1714년)에 〈김씨전〉을 지었다고 한다.(이명학, 「〈김씨남정기〉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2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9, 32쪽 참조.)

5) “남편의 원수에 대하여 아버지의 원수같이 여기는 경우는 수천 년 역사를 통하여 찾아본다고 해도 흔하지 않은 일이니 어찌 전을 짓지 않을 수 있겠는가!”(권이진, 〈김씨전〉, 『국역 유희당집』 3권, 안동권씨유희당파종중, 2006, 52쪽. 이후 〈김씨전〉번역은 이 책의 것을 따르고, 필요한 경우 수정함.)

6) 두 글의 선후관계는 권이진이 영광 부사로 재직할 기간과 권이진의 연보, 그리고 〈김씨남정기〉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의 생애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김씨전〉에 “내가 처음 여기에 이르러 죄인을 심문할 때(余初至訊囚)”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는 영광을 가리키므로, 〈김씨전〉은 권이진이 영광 군수로 재직할 기간인 1714년 8월부터 1715년 12월 사이에 기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김씨전〉을 1714년에 지었다는 연보의 기록과도 일치한다. 〈김씨남정기〉 창작의 상한선은 주 8)번의 내용과 같이 작중 실존 인물 김홍경의 행적을 고려할 때 1732년 이전으로 올라갈 수 없다.

7) 이명학(1989), 앞의 논문, 29~37쪽.

등을 추정했다.⁸⁾ 신분갈등형 송사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전의 보고성과 재현성’을 논하는 가운데 〈김씨전〉과 〈김씨남정기〉를 대비한 연구에서는, 〈김씨전〉과 〈김씨남정기〉의 서사 단락을 비교하며, 입체적, 재현적 서술 방식을 통해 생동하는 인물과 긴장감 있는 사건 전개를 그린 〈김씨남정기〉가 서사적 개연성과 소설적 진실 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⁹⁾ 주노 갈등과 복수(復讐)의 서사적 양상을 살핀 연구에서도 〈김씨남정기〉를 언급했는데, 전 양식의 규범성에 간혀있는 〈김씨전〉에 비해 〈김씨남정기〉는 동일한 사건을 소설로 구체화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¹⁰⁾ 이상의 연구를 통해 〈김씨전〉, 〈김씨남정기〉 창작의 원천, 작품의 경계 등에 대한 기초적 소개가 이루어졌고, 〈김씨남정기〉를 소설로 보는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하겠다.

그런데 〈김씨전〉 대비 〈김씨남정기〉의 작품 분량이 확대되었고 새로운 사건과 주변 인물들이 첨가되는 등 그 내용이 구체화 된 것은 맞지만, 〈김씨남정기〉가 소설적 글쓰기를 지향한 소설 작품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씨전〉과 〈김씨남정기〉의 서사를 상세히 분절, 대비하여 〈김씨남정기〉 글쓰기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김씨남정기〉 글쓰기의 의의에 대해 생각해보려 한다. 이를 통해 〈김씨남정기〉를 소설로 평가한 기존 논의가 보완되고, 〈김씨남정기〉의 자료적 가치나 의미를 보다 섬세하고 다양하게 읽어내는 후속 연구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¹¹⁾

8) 이명학은 김홍경이 훗날 재상이 되었다는 내용이 〈김씨남정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김홍경이 우의정이 된 것이 1732년이므로 창작의 상한선은 1732년을 넘을 수 없다고 보았다. 또 〈김씨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김홍경을 사건의 해결자로 등장시킨 점 등으로 보아 〈김씨남정기〉는 노론계 인물이 쓴 작품일 것이라고 했다.

9) 이현홍, 「신분갈등형 송사의 서사적 양상과 의미」, 『동양한문학연구』 8, 동양한문학회, 1994, 171~232쪽.

10) 정준식, 「주노갈등-복수」의 서사적 양상과 의미, 『국어국문학』 32,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95, 21~48쪽.

11) 연구 대본으로, 〈김씨전〉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권이진의 문집 『유회당집』의 것을

2. 서사 단락 대비를 통해 본 〈김씨전〉과 〈김씨남정기〉

〈김씨남정기〉 글쓰기의 특징 및 기술 의도를 파악하고, 글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작품의 서사 단락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김씨전〉과 〈김씨남정기〉의 서사 단락이 정리되긴 했지만, 두 작품의 같고 다른 점이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이에 다소 길지만 〈김씨전〉과 〈김씨남정기〉의 서사 단락을 대비하여 표로 제시해본다.

	〈김씨전〉	〈김씨남정기〉
1	인물 소개 - 김 씨가 모재 선생의 후손임을 말함. - 하인들이 주인을 배반했다고 간략히 말함.	인물 소개 및 추쇄의 배경 서술 - 김 씨가 모재 김안국의 8대손임을 말함. - 김 씨와 그의 남편 황동로의 집이 경제적으로 모두 어려워, 신공을 받기 위해 오랜 기간 관계가 끊어졌던 노비 추쇄를 결심하게 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서술.
2	황동로의 노비 추쇄 및 사망 - 주인을 배반한 노비들을 처결하라는 관의 허락을 받은 황동로가 노비들을 찾아감. - 노비 박천강 등이 황동로를 죽인 후 가족을 이끌고 도망감.	황동로의 1차 노비 추쇄 - 1704년, 김 씨의 남편 황동로가 처가를 대신하여 전남 영광으로 노비 추쇄에 나서지만 반노 박천강, 박천명 형제 등이 강하게 맞설 뿐 아니라 뇌물을 써 관료를 매수하여 실패함. - 의복(義僕)인 박곤, 장인봉 덕분에 집으로 돌아옴.
3	없음	노비 주 소송 - 1705년, 신삼정이라는 사람이 박천강 등의 소유주임을 주장하여, 한 달에 걸친 소송 끝에 몇몇 노비를 쇠환함.
4	없음	황동로의 2차 노비 추쇄 - 1705년 가을, 신삼정과 소송 후 박천강 등이 납공을 빌미로 황동로를 영광으로 유인. - 황동로가 영광으로 가기 전 장예원(掌隸院)에서 노비 관련 문서 공증을 받기 위해 서울로 가지만, 수개월 동안 일이 진척되지 않음.

사용하며 〈김씨남정기〉는 부산대학교 도서관 쌍매당문고의 필사본 〈金氏南征記〉(총 64면)를 사용했다.

5	없음	<p>연락 두절 및 예지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07년 1월, 장예원으로 간 후 소식이 없던 황동로가 안부 편지를 보냄. - 이후 1년 이상 연락 두절. - 1708년 봄, 찢어진 옷차림에 흙투성이가 된 황동로가 김 씨의 꿈에 나타남.
6	<p>시아버지 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된 황동로의 종적을 수색하기 위해 황기로가 집을 비운 사이 김 씨의 시아버지 황 씨 사망. 	<p>시아버지 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08년 3월, 아들을 염려하던 김 씨의 시아버지 황탁이 병으로 사망. - 1709년 2월, 시아버지 시신을 선영에 묻음.
7	없음	<p>황동로의 생사 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씨의 친척 조상항이 영광군과 근거리에 있는 고창의 군수를 통해 황동로의 생사를 탐지함. - 1710년 4월, 고창 군수를 통해 황동로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조상항이 알게 됨.
8	없음	<p>예지몽과 김 씨의 황동로 사망 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척해진 황동로가 흙투성이가 된 채 김 씨의 꿈에 나타남. - 때마침 조상항이 보낸 고창 관아의 노복이 김 씨에게 황동로의 사망 소식을 전함.
9	<p>김 씨의 남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아버지 장례를 마친 김 씨가 시어머니와 헤어져 자녀를 이끌고 영광으로 가던 중 어린 아들이 천연두에 걸려 사망. - 아이를 묻은 후 영광 소만촌으로 반노들을 찾아감. 	<p>김 씨의 1차 남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동로의 허위를 배설한 김 씨가 '복수'를 결심함. - 어린 아들과 딸을 홀어머니와 외삼촌 구 씨에게 맡긴 후, 시어주머니 황기로와 함께 반노 박천강 등을 찾으러 길을 떠남.
10	없음	<p>예지몽과 김 씨의 복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흥 지역 한 노비의 집에 의탁하던 중, 김 씨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애원하는 황동로 꿈을 노비 아내가 대신 꿈. - 황기로가 꿈에 대해 듣고는 김 씨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 - 김 씨가 박천강 등의 행적을 탐지할 수 있는 방안을 황기로에게 제안한 후 복귀.
11	<p>관청에 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만촌에 살던 반노들이 고부 부안곳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은 김 씨가 부안곳으로 가서 수개월 동안 노비들의 종적을 수소문한 후 대략의 종적을 탐지하여 황기로를 통해 관에 신고함. - 관군이 박천강 등의 최종 은거지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을 때, 한 아이가 나타나 반노들이 벼짚 안에 숨어 있다고 알려주어 반노를 잡아 관아로 보냄. 	<p>황기로의 박천강 추적 및 1차 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천강 등이 고부군 고지도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황기로가 고부 관아에 신고. - 1711년, 고부군 아전 은상열의 집에 숨어 있던 박천강 일당을 황기로가 군졸들과 함께 찾아내 고부 관아로 보냄.

12	없음	<p>김 씨의 2차 남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천강 등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김 씨가 재차 복수를 다짐하며 홀로 고부로 향함. - 김 씨와 황기로가 고부에서 재회. - 황기로가 김 씨의 계책 덕분에 반노들을 잡았다며 김 씨에게 공을 돌림.
13	<p>군수의 업무 태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수가 반노들의 죄를 엄히 다스리려 하지 않음. 	<p>고부군수의 업무 태만과 대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 군수 장후원이 김 씨의 하소연을 외면하니, 김 씨가 장후원의 무책임함을 비판. - 김 씨와 박천강 등을 대질 심문함. - 김 씨가 군수 장후원에게 노비 추쇄 과정과 황동로의 사망에 대해 설명하며 박천강 등이 죄인임을 말함. - 박천강은 자신이 황동로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발뺌함. - 대질 끝에 장후원이 김 씨의 의견대로 보고를 올리겠다고 하였으나, 긴 기간 사건이 진척되지 않음.
14	<p>김 씨의 신문고 올리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씨가 서울로 가서 신문고를 올리려 했으나, 임금의 건강이 좋지 않아 대궐에 들어갈 수 없어 실패함. 	<p>김 씨의 신문고 올리기¹²⁾</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수와 감사의 미온적인 태도가 염려되어 김 씨가 신문고를 올리려 했으나, 임금의 건강 때문에 실패함.
15	<p>예지몽과 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에서 다시 고부로 향하다가 급구에서 잠깐 쉬는 김 씨의 꿈에 황동로가 나타나 길 떠나기를 재촉함. - 길을 가는 중 박천강의 친척 장인봉을 만남. - 장인봉이 박천강 등의 억울함을 거짓 하소연하는 소장을 감영에 제출하려 가는 것을 김 씨 일행이 알게 되어, 장인봉을 관으로 포박해 감. 	<p>예지몽과 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씨의 꿈에 나타난 황동로가 고부에 머물지 말고 떠날 것을 청함. - 김 씨가 황기로에게 꿈 이야기를 하며, 고부가 아닌 전주로 가서 하소연할 것을 제안함. - 황기로가 노복들의 병을 이유로 주저하다가 김 씨의 뜻을 따름. - 전주로 가는 길에 황동로의 벗인 이행관을 우연히 만나 노복과 말을 엿음. - 전주로 가던 중 급구에 머물게 되었는데, 우연히 황기로 일행을 엄히 처리하라는 공문서를 전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 황기로 등이 “너말로 인해 바른 도리는 사라졌다.”며 분노함.

12) 〈김씨전〉에서는 영광 군수가 죄인들을 엄히 다스리지 않자 김 씨가 바로 신문고를 올리려 했다고 되어 있다. 반면 〈김씨남정기〉에서는 두 차례 남정을 하고 여러 차례 관에도 호소했으나 사건에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김 씨가 신문고를 올리려 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조선의 관습과 법률 조례를 근거로 볼 때, 〈김씨남정기〉 속 김 씨의 행동이 더 현실적이다.

16	없음	<p>담양 부사의 도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에 심 리를 못 미쳐, 홍수가 나 냇물을 건너지 못함. - 김 씨가 신임 담양 부사 류태명의 행차를 가로막고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 하니, 담양 부사가 김 씨의 열행을 칭찬하며 냇물을 건너도록 군사를 시켜 도와줌.
17	없음	<p>2차 고발 및 전주 감사의 심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에 도착한 후 날이 밝기를 기다려 관청으로 감. - 전주 감사 이해조가 김 씨의 하소연을 듣고, 그간의 사건을 파악함. - 일 처리에 문제가 있는 고부 군수가 아닌 김제 군수에게 영을 내려달라고 김 씨가 감사에게 청하니, 김제 군수 최주악에게 사건을 조사하라고 명을 내림.
18	없음	<p>기생, 여항인, 관리들의 위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영의 기생들이 김 씨의 열행을 칭송함. - 우연히 만난 노부인, 관청의 관리 등도 김 씨의 열행을 칭송하며 음식 등으로 도움을 줌.
19	없음	<p>예지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은 황동로가 춤을 추며 기뻐하는 모습과 집 뒤편 장독 밑에 그가 서 있는 꿈을 꾸 김 씨가 머지않아 남편의 원수를 갚게 될 것을 짐작함. - 밖에 나갔던 노비 팽이가 우연히 박천강의 아들 박민걸을 만나 잡아오니, 김 씨가 전주 감영으로 데려감.
20	<p>감사의 심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의 취조 끝에 박천명 등이 황동로를 죽였고, 장인봉은 망을 봤다는 사실이 드러남. 	<p>전주 감사의 심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 감사가 박민걸을 심문하여, 문서는 물질에 매수된 고부의 아전 은상열이 썼고, 이를 판에 바치도록 한 사람은 자기 아버 박천강임을 알아냄. - 감사가 사건 관련자인 은상열, 장인봉 등도 심문함. - 심문 끝에 장인봉으로부터 1707년 3월, 박천강 형제가 황동로를 죽여 장독 밑에 매장하는 것을 보았다는 실토를 받음.
21	<p>황동로의 시신 발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장과 본 고을 수령을 시켜 시신 있는 곳을 파도록 함. - 의복은 없으나 살점과 뼈가 남아 있는 시신을 찾음. 	<p>황동로의 시신 발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인봉이 황동로의 시신 매장한 곳을 지목함. - 장인봉의 말에 따라 비장 황치위, 영광 군수 박사동, 오작 김신미가 시신을 발굴하러 감. - 김 씨가 남편의 인상착의를 진술함. - 1707년에 죽어 육신이 썩고 해골만 남은 황동로의 시신을 1712년에 찾음.

22	<p>거짓 증언 및 삼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된 시신은 유랑 결식하는 8, 9세 쯤 되는 여자아이의 것이라고 박천명이 주장함. - 복검관 무안 현감이 박천명의 말에 흔들리니, 감사가 다른 고을 수령에게 삼검을 명함. - 김 씨가 황동로의 치아 특징을 진술한 것이 근거가 되어 발굴한 시신이 황동로임이 확정됨. 	<p>거짓 증언 및 재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천강의 부탁을 받은 촌민 신무길, 박태정, 윤사금 등이 발굴된 시신이 황동로의 것이 아닌, 15세 결인의 주검이라고 거짓 증언 함. - 거짓 증언에 흔들린 검시관이 황동로의 시신임을 확정하지 못하던 중, 동백나무로 만든 비녀가 황동로의 유품임이 드러나 시신이 황동로임을 확정함. - 감사가 여산 부사 황익촌과 영광 군수 박사동에게 재검을 명함. - 김 씨가 짚을 하며 감사를 표하니, 전주 감사가 공적인 일을 했을 뿐이라며 감사를 사양함.
23	없음	<p>인근 주민들의 위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씨가 전주에서 영광으로 남편의 시신을 인계받으러 가려 하니, 인근 부녀자 세 명이 음식을 들고 나와 김 씨를 위로함.
24	없음	<p>신무길 등의 하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무길 등이 다시 한 번 해당 시신이 15세 결인의 것이라고 주장함. - 여산 부사 황익촌이 시신이 매장된 마을 주민들에게 정황을 탐지하여 신무길 등의 거짓 증언을 확인한 후 신무길 등을 하옥시킴.
25	없음	<p>김 씨의 황동로 시신 인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씨가 황동로의 주검을 절차에 따라 인계 받음. - 김 씨가 시신을 어루만지며 통곡함. - 영광 군수 박사동이 감사 이혜조의 명에 따라 황동로의 시신을 입관하도록 도움을 줌.
26	<p>영광 군수 권이진의 죄인 심문 및 처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광 군수가 죄인들이 종아리에 곤장을 맞은 흔적조차 없는 것을 문제로 여김. - 법에 규정된 곤장은 너무 가벼워 죄를 자복하게 할 수 없다며, 심하게 곤장을 치고 세 번 죄를 심문하여 죄인들을 죽임. 	<p>영광 군수 박사동의 죄인 심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천강, 신무길 등이 집장졸을 재물로 매수하여 배를 약하게 치도록 하니, 영광 군수가 직접 집장졸을 치며 반노를 엄히 다스리도록 함. - 뼈가 부러지도록 맞은 박천강 등이 자백을 함.
27	<p>김 씨의 고향 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광 군수가 인마를 마련하여 김 씨와 영구(靈柩)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움. 	<p>김 씨와 영구의 전주 복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동로의 영구가 전주에 이르자 감사 이혜조가 조문을 하며 김 씨의 정절을 칭송하고 부조를 함. - 김 씨가 감사의 은택에 고마움을 표하며, 반노들을 속히 죽여 달라고 간청함.

28	없음	감사 이해조의 죄인 처벌 - 감사가 적노를 바로 죽이는 것은 아깝다며 박천강 등을 죽이지 않고 매로 다스림. - 신무길 등은 박천강과 결탁하였으므로 강한 처벌 후 유배를 보내고, 장인봉, 송시기 등은 처벌 후 풀어줌. - 은상열, 박민결을 하옥함.
29	없음	감사 이해조의 별세 - 1712년 가을, 감사 이해조가 병으로 세상을 떠남. - 전주에 머물던 김 씨가 황기로에게 부탁하여 조문을 함.
30	없음	신임 감사의 부임 - 최종 처벌을 앞둔 채 이해조가 사망하고 신임 감사 류봉후가 부임하니, 김 씨가 황기로와 함께 관청으로 찾아가 사건의 곡절을 다시 하소연함. - 감사 류봉후가 속히 황동로의 시신을 선영에 안장하라며 김 씨에게 돈을 주고 재촉함. - 감사가 공정한 판결을 김 씨에게 약속함.
31	없음	각 고을 사람들의 도움 - 김 씨 일행이 영구를 이끌고 전주, 여산, 공주, 은진을 거쳐 고향인 해미현까지 감. - 곳곳에서 김 씨 일행에게 도움을 줌.
32	없음	고향에서의 장례 - 김 씨 일행이 고향으로 돌아옴. - 김 씨의 어머니, 외삼촌 등이 나와 통곡함. - 3년간 온갖 고난을 겪은 김 씨가 아이들을 어루만진 후 쓰러짐. - 가산을 팔아 황동로의 장례를 치르고, 구룡동 시부모 옆에 매장함.
33	없음	김 씨의 3차 남정 - 김 씨가 박천강 등이 감옥에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언제든 뇌물을 써 방면될 수 있다고 판단함. - 박천강 등의 사형을 재촉하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나기로 결심함. - 먼저 장예원으로 가서 판결 문서를 얻은 후, 아들 영수, 외삼촌 구 씨, 시아주버니 황기로와 함께 영광으로 감.
34	없음	죄인들의 방면 - 그 사이 박천강의 아들 박민결, 신무길 등이 풀려난 것을 알게 됨. - 박천강 형제도 감영에 뇌물을 바쳐 감옥에서 거의 나오게 된 상황임. - 감사 류봉후, 영광 군수 박사동이 체직되어 다른 곳으로 가고 없음. - 새로운 감사와 군수는 횡령과 수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일을 공정하게 처리할 의사가 없음.

〈김씨전〉에 언급되지 않은 사건들이 〈김씨남정기〉에 다수 기술된 것을 대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씨전〉이 서사의 굵직한 뼈대를 제시하고 글쓴이 권이진의 엄정한 판결과 전 서술 동기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김씨남정기〉는 각 사건을 상세히 서술할 뿐 아니라 그 수도 확대하여 사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준 것이다. 위 표의 8번 항을 기준으로 노비 추쇄를 다룬 전반부와 살인사건 해결을 다룬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김씨전〉에 비해 〈김씨남정기〉의 사건이 전반, 후반 모두 풍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 씨 부부가 노비 추쇄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고, 황동로의 추쇄가 2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장예원을 거쳐 추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등의 노력을 했다는 점이 전반부에 상세히 기술되었다. 남편 황동로의 실종과 사망 후 김 씨가 서사의 전면에서 등장하는 작품 후반부의 살인사건에 관해서는, 사건 해결을 위한 김 씨의 노력과 고난이나 법 집행자들의 행태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다. 특히 〈김씨전〉에서 1회 서술된 김 씨의 남정이 〈김씨남정기〉에서는 3회 서술되었고 작품의 제목도 김 씨의 남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3. 〈김씨남정기〉 글쓰기의 특징

- 재현성과 보고성의 동반 강화

서사 단락 대비를 통해 〈김씨남정기〉가 〈김씨전〉에 비해 전후반 모두 내용적으로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된 작품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선행 연구에서는 〈김씨전〉이 사건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에 비해 〈김씨남정기〉는 사건을 자세하고 복잡하게 형상화함으로써 소설로 구체화 했다고 하여, 〈김씨남정기〉가 소설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데 집중했다.¹³⁾ 작품의 소설성

13) 정준식(1995), 앞의 논문, 33쪽.

이 인물의 심리 묘사나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등을 통해 드러난다고 본 것인데, 〈김씨남정기〉가 “사건전개의 인과성을 밝힘은 물론 재현적 서술로서의 소설이 지닌 창조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범인과 대질 신문하는 장면에서 범인들의 모면을 위한 간악한 거짓증언, 김씨의 경과설명 및 처벌근거 제시, 그리고 뇌물로 인해 판결이 지연, 왜곡되는 형편, 고부 관아에서의 해결이 불가능함을 알고 전주 감영에 호소하기까지의 황기로와의 의견 충돌과 그 설득과정, 서울 손님에게 말과 종 그리고 노자까지 빌고, 담양부사의 도움으로 강물을 건너가게 되는 과정에서의 도움을 호소하는 장면, 감사 이해조의 도움으로 공정한 수령에게 사건을 배당받아 김제군으로 가는 장면 및 길거리에서 모인 사람들이 김 씨를 도우며 칭송하는 모습, 범인의 아들인 민결을 황동로의 현몽에 의해 우연히 길에서 만나 체포하고 또 그를 변호하는 아전 은상열을 구속하는 장면, 그리고 살해현장에 함께 있었던 장인 봉을 잡아 시체 매장처를 알아내는 과정에서의 신문장면과 살해경위의 묘사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들은 바로 사건전개의 인과성을 밝힘은 물론 재현적 서술로서의 소설이 지닌 창조성과 관련되는 모습이다.”¹⁴⁾

위의 글은 〈김씨남정기〉의 재현성과 소설성을 강조한 논문에서 소설성의 근거로 제시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중심인물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주변 인물들을 등장시켜 주변 서사를 풍성하게 기술한 점을 〈김씨남정기〉의 소설성 확대 요소로 보았다.¹⁵⁾

14) 이현홍(1994), 앞의 논문, 187쪽.

15) 이 외에도 〈김씨남정기〉의 편집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김씨전〉에서는 작자가 노비의 악행에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추노설화 중 ‘복수설 유형’의 기본형의 입장과 같다.(정준식·이현홍, 「‘복수설 유형’의 전승양상과 소설적 변용」, 『한국문학논총』 38, 2004, 7쪽 참조) 그러나 〈김씨남정기〉에서는 여러 주인에게 시달리는 노비들의 상황을 서술하기도 하고, 박공과 장인봉과 같은 선한 노비를 등장시키기도 했다. 논평에서는 황동로가 돈을 담하여 처가를 대신하여 추노한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조선후기의 노비 추쇄에 관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그런데 서사적 확장이나 재현성 강화의 의도가 글의 창조성, 곧 허구성의 강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김씨남정기〉가 인물과 사건을 확대하여 서사를 확장한 양상을 보면, 〈김씨전〉에 비해 보고성 또한 강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김씨남정기〉의 사건과 인물 확대가 허구성이나 창조성의 강화, 즉 소설성의 강화로만 수렴되지는 않는 특징이 있는 것이다.

두 작품 간 인물 수의 양적 차이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김씨남정기〉의 등장인물 수는 〈김씨전〉의 두 배 이상이다. 사건 수도 많아지고 각각의 사건이 확대된 만큼 등장인물도 다수 추가되었다. 〈김씨전〉은 노비 추쇄에 나선 황동로, 그의 형 황기로, 반노(叛奴) 박천장, 박천명, 장인 봉과 영광 군수 권이진의 이름만 구체적으로 밝혔고, 중심인물 김 씨를 비롯하여 나머지 인물들은 무안 현감, 고부 태수 등과 같이 관직명으로 기록했다. 그런데 〈김씨남정기〉는 등장인물의 수를 확대했을 뿐 아니라, 소수 몇몇을 제외하면 인물 대부분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씨남정기〉가 실화를 토대로 하는 작품인 만큼 〈김씨전〉 대비 인물을 얼마나 추가했고 그들은 누구인지, 또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해 보았는데, 이를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김씨전〉	〈김씨남정기〉	문헌 기록
김 씨	김 씨	
黃東老의 아버지(其父)	김 씨의 시아버지 黃瑑	
黃東老	김 씨의 남편 黃東老	
黃起老(其兄)	김 씨의 시아버지 黃箕老	
김 씨의 아들(其兒子)	김 씨의 아들 黃永壽	
반노 朴千江	반노 朴天江	
반노 朴千明	반노 朴天明	

하다. 〈김씨전〉의 작전 의도가 김 씨의 의열에 대한 칭찬에 있다면 〈김씨남정기〉는 노비주와 노비 양자의 시각을 일부 재현함으로써 조선후기의 긴장과 갈등을 재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박친강의 사촌 張仁奉	반노 중의 의복 張仁奉	
古阜郡 太守(其守)	古阜郡 太守 張厚元	張孝源 ¹⁶⁾
監司	監司 李公 李海朝	李海朝 ¹⁷⁾
김 씨의 선조 金慕齋	김 씨의 팔대조 金慕齋	金慕齋
務安縣監		黃翼再 ¹⁸⁾
靈光郡守 權以鎭		權以鎭
	대흥 군수 姜漣	姜琿 ¹⁹⁾
	礪山府使 黃益村	姜琿 ²⁰⁾
	全羅監司 柳鳳厚	柳鳳輝 ²¹⁾
	御史 金興慶	金興慶
	潭陽府使 柳泰明	柳泰明 ²²⁾
	金堤郡守 崔柱岳	崔柱岳 ²³⁾
	靈光郡守 朴士東	朴師東 ²⁴⁾
	대흥 상전 申三徵	
	김 씨 외척 趙尙恒	
	고부군 아전 殷相說	
	반노 宋時起	
	황동로의 지인 李行觀	
	김 씨의 노비 彭伊	
	全州 주민 申起長	
	박친강의 아들 朴民結	
	비장 黃致緯	
	오작 金信美	
	촌민 申武吉	
	촌민 朴太丁	
	촌민 尹士金	
	촌민 朴立	
	韓培祖의 제자	
	營妓	
	김 씨의 아버지 金德謙	
	김 씨의 외삼촌 具生	
	김 씨의 종제 金彥圭	
	반노 중의 의복 朴坤	
	부녀자들	

16) 『승정원일기』 숙종 36(1710)년 12월 19일 “下直, 沃川郡守朴聖漢, 古阜郡守張孝源”

표를 보면 두 작품 간 인명 표기에 있어 음은 같거나 비슷하지만 한자 표기가 다른 인물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작품의 시간 배경이 되는 당시, 해당 직책을 맡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관료들의 성명 중 일부가 다른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오류를 제외하면 실존 인물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명이 〈김씨남정기〉에 다수 첨가, 활용되었다 하겠다.

〈김씨전〉은 인물을 소수만 제시하고 일부 인물은 성명도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독자가 사건의 경과보다 결과에 집중하게 하며, 최종 판결자인 권이진의 결단과 본 사안에 대한 견해 그리고 전 창작의 동기에 집중하게 하는 면이 있다. 사건에 직접 개입한 ‘나’ 권이진이 듣고, 보고, 이해한, 또 밝히고 싶은 만큼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권이진이 최종 심문하여 죄인을 장살한 후 전 창작의 동기를 밝힌 부분에는 권이진 개인의 문제의식과 김씨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가 비장과 본 고을 수령을 시켜 파보게 하니 죽은 지 이미 8년이나 되어 서 의복은 하나도 남아 있는 것이 없었다. (중략) 마침내 옥사가 이루어져 죄인을 끌고 두세 고을을 거쳐 다시 영광에 이송하였다. 내가 처음 여기에 이르러 죄인을 심문할 때 김씨가 상복을 입고 동헌의 뜰로 들어왔는데, 남편이 죽은 지 9년이 되었어도 아직 상복을 벗지 않고 있었다. 울면서 원통한 사정을 하소

17) 『승정원일기』 숙종 38(1712)년 1월 2일 “...全羅監司 李海朝 之喪, 已近十日, 本道 主管無人, 事甚可慮. 交代 監司 柳鳳輝, 催促出廬, 使之不多日內還朝...”

18) 『승정원일기』 숙종 37(1711)년 1월 17일 “下直...務安縣監黃翼再”

19) 『승정원일기』 숙종 31(1705)년 윤4월 2일 “下直, 大興郡守姜瑋”

20) 『승정원일기』 숙종 37(1711)년 1월 6일 “姜瑋爲礪山府使”

21) 『승정원일기』 숙종 38(1712)년 1월 16일 “下直, 全羅監司 柳鳳輝”

22) 『승정원일기』 숙종 37(1711)년 1월 25일 “下直, 潭陽府使柳泰明”

23) 『승정원일기』 숙종 34(1708)년 9월 12일 “崔柱岳爲金堤郡守”

24) 『승정원일기』 숙종 35(1709)년 10월 24일 “下直, 靈光郡守 朴師東”

연하니 말씨가 매우 애절하고 처량하여 차마 들을 수가 없었으며, 죄인의 모습을 보니 종아리에 곤장 맞은 흔적이 없었다. 대개 동추는 몇 개월이 걸리고 법에 규정된 곤장은 너무 가벼워 취조하여 죄를 자복하게 할 수 없었다. 또한 죽을 정도로까지 죄를 추궁할 수 없으니 살인으로 감옥에 들어가 수십 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또한 한 사람도 곤장으로 죽은 자가 없었다. 천명 같은 자도 이와 같았다면 저 김씨 부인은 비록 수십 년이 지나더라도 영원히 떠돌아다닐 것이다. 장례를 치를 즈음에 특별히 곤장을 치면서 세 번 죄를 심문한 다음 모두 죽이고, 인마를 마련하여 부인 김씨에게 보내어 집에 돌아가도록 하였다.”²⁵⁾

인용문은 〈김씨전〉 중 감사가 시신을 발굴한 것에서부터 영광 군수 권이진이 최종 판결과 처벌을 시행하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씨의 남편 황동로가 사망한 지 9년이 지났고, 시신을 발굴한 지 1년이 지난 상황인데,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장례는 누가 어느 곳에서 치르는 것인지 등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없다. 또 반노들을 어떻게 심문하고 장살하였는지에 대한 과정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대신 김 씨의 애절한 말과 처량한 형편이 안타까웠고 법은 지나치게 관대했기 때문에 자신이 특히 엄정하게 죄인들을 다스리고 김 씨를 위해 부조했다는, 권이진 자신의 성과를 드러내는 데 집중한 감이 없지 않다. 〈김씨전〉이 전반적으로 “전달 보고적 서술 방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²⁶⁾다고 했지만, 따져보면 〈김씨전〉은 사건에 대한 보고적 측면도 충실하지 않은 것이다.

25) “使營繕偕本官發現 則死已八年矣 衣服無一存者 (중략) 獄遂成 轉二三邑 卒移靈光 余初至訊囚 金氏服衰立庭 乃夫死九年 尚不脫衰也 泣訴冤狀 言極悲楚 不忍聽 視其囚 脛無杖痕 蓋期會同推 動以數月 法杖輕薄 不足以取服 又不可使之死 故以殺人入獄者或曆數十年 無一人取服 亦無一人杖死者 千明亦將如此 則彼婦人 從今雖數十年 永無歸家 喪尸之期 乃別爲杖 三鞠 皆殺之 調人馬津 遣金氏歸家”(〈김씨전〉, 50~51쪽.)

26) 이현홍(1994), 앞의 논문, 176쪽.

반면, 〈김씨남정기〉의 작자는 사건의 핵심 인물과 가해자, 피해자의 이름뿐 아니라 당시 공무를 담당한 관료들과 주변인들을 추가하고 그들의 이름을 명기하면서 사건의 전모를 촘촘히 제시하려 했다. 사건 당사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증인과 사건 담당자 등의 이름과 행위를 기록한 것은 사건 해결 과정을 상세하게 밝혀 사실성을 높이며 한 것이다.

그런데 황동로의 지인인 이행관이나 과거 급제자를 양성한 선비 한배조와 같이 지엽적인 인물의 이름까지 언급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김 씨를 위해 인정을 베풀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김씨전〉의 작자이자 김 씨 부부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군수 권이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특이점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영광 군수 권이진이 〈김씨남정기〉에서 부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전임 영광 군수 박사동은 거명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 사건을 해결한 후임 영광 군수 권이진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고, 더욱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영광 군수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사 김홍경에게 심하게 질책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²⁷⁾라고 했다.

그러나 이 평가는 작중 내용과도, 또 실제 사실과도 다른 면이 있다. 앞 장에서 제시한 〈김씨남정기〉의 단락 34와 39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작자는 감사 류봉후와 영광 군수 박사동이 체직된 후 새로 감사와 군수가 부임했는데, 그들이 공정하지 못한 인물이며 성명도 기록할 것이 없다고 적었다. 반면 단락 39에서 언급한 영광 군수는 가마와 말, 옷과 식량을 준비하여 김 씨 모자의 귀향을 도왔다고 했다. 단락 39에 등장하는 영광 군수의 행위는 〈김씨전〉 결말부에서 죄인을 죽인 후 “인마를 마련하여 김씨에게 보내어 집으로 돌아가도록 했다.”는 권이진의 행위와 일치한다. 그러니 〈김씨전〉에서 권이진이 스스로 밝힌 권이진의 행적이 〈김씨남정기〉에서

27) 이명학(1989), 앞의 논문, 32쪽.

아예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인마를 마련하여 김 씨의 귀향을 도운 권이진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단락 34에서 말한 전라감사와 영광 군수는 누구일까.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전라남도영광군지도읍지』(1899) 30쪽(15B)을 보면, 1709년 11월 영광 군수로 부임한 박사동이 체직된 후, 1712년 3월 김시환(金始煥)이 영광 군수로 재직했고, 이후 1714년 8월 권이진이 부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류봉회가 1714년 5월에 체직되고 새로 온 감사는 이집(李堦)이라는 기록이 있다.²⁸⁾ 이집은 1714년 7월부터 1715년 8월까지 전라감사로 재임했다. 단락 35에서 이미 1714년 3월의 일을 언급했으니, 읍지에 기록된 군수들의 부임 시기를 고려하면 단락 39의 영광 군수는 권이진이고, 단락 34의 새로 온 감사는 이집이며 영광 군수는 김시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 <김씨남정기>의 작자가 박사동 이후 영광 군수로 재직한 인물이 횡령과 뇌물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쓴 것은 김시환 등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성이 없지 않다 하겠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시환이 선정을 베풀어 생사당(生祠堂)이 건립되었다는 기록이 읍지에 남아있는 바, 횡령과 수뢰를 좋아하는 인물로 그의 성명을 직접 거론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소소한 주변 인물까지 이름을 거론한 <김씨남정기>의 작자가 차마 이름을 말할 수는 없다는 부기를 붙였던 것으로 생각된다.²⁹⁾

물론, 김홍경이 1714년 당시 어사로 재직하지 않았음에도 <김씨남정기>에서 사건 해결자로 기술한 것처럼 박사동이 체직된 후 부임한, 뇌물을 좋아하는 신임 영광 군수를 가상의 인물로 생각해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인물 대비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다수의 실존 인물들을 작품에 등장

28) 『승정원일기』 숙종 40(1714)년 7월 15일 “下直, 全羅監司李堦”

29) “新來監司 時在郡守 無姓名可欠 皆是貪污之類 少無公平之意 事如草創 案判就緒 死獄既解 亦何決稍”(〈김씨남정기〉, 57쪽.) 신임 감사와 영광 군수의 이름은 언급할 수 없으나, 그들이 무도한 인물이라고 했다.

시킨 〈김씨남정기〉 작자의 글쓰기 방식을 고려할 때, 실제 살인사건의 주도자들이 거주했던 고을인 영광 군수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불분명하게 기록한 것은 의도성이 다분해 보인다. 전라감사 이집과 영광 군수 김시환이 불의한 인물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사건 해결의 중간 과정은 생략한 채 〈김씨전〉을 통해 실제와 달리 사건 해결의 공을 자신에게 돌린 권이진에 대한 불편한 심리를 담아 해당 부분을 서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전라 감사 이해조가 〈김씨남정기〉에서 부각되는 것보다 맥을 같이 한다. 〈김씨전〉에서는 모호하게 ‘감사’로만 서술했는데, 〈김씨남정기〉에서는 사건 해결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로 이해조를 직접 언급했다. 〈김씨전〉에서 죄인을 심문하고, 황동로의 시신을 발굴하여 삼검을 지시한 인물을 간단히 감사라고만 했는데 이는 〈김씨남정기〉 속 이해조의 행적과 일치한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김씨남정기〉가 〈김씨전〉에 비해 인물을 확충하고, 그 인물과 연관된 사건들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은 분명한데, 다만 인물과 사건의 확충은 허구성이나 그럴듯한 개연성의 확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노비 추쇄와 살인사건 해결의 실상을 보다 촘촘히 기술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허구적으로 인물과 사건을 창조하여 그럴듯하게 개연성을 높이려 했다면, 작가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싶은, 사건과 관련 있는 일부 인물의 이름을 숨기는 정도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씨남정기〉는 인물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 배경을 통해서도 사실성과 보고성을 강화했다. 앞서 제시한 2장의 표에도 정리해두었는데, 〈김씨남정기〉는 1704년 추노의 시작부터 1714년 반노들의 최종 처벌에 이르기까지 각 사건이 벌어진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고, 인물이 이동하는 장소도 일일이 기록했다. 한 예로 〈김씨전〉에서는 김 씨가 황동로의 영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고만 서술했는데, 〈김씨남정기〉에서는 김 씨가 황동로의

시신을 인계받은 영광에서 출발하여 전주에 도착한 후 이해조로부터 조문을 받고, 이후 각 고을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여산, 공주, 은진을 지나 최종 목적지인 해미현에 이른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다.

한편 감사 이해조의 사망 이전까지는 내용을 듣성듣성 기록했으나 촌촌하게 기록했으나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감사 이해조의 사망 이후로는 사건의 전개가 달라진다. <김씨전>에서는 사건이 마무리 단계로 가지만 <김씨남정기>는 단락 29-38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해조의 죽음으로 인해 사건이 지지부진해지다가 김 씨의 3차 남정과 여사의 등장으로 사건이 매듭지어지는 구조를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 씨의 3차 남정 부분은 사실적 보고성을 추구하던 2차 남정까지의 기술과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등장인물을 설정함에 있어 확인이 가능한 사실과 허구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실제 사건과 달리 여사 김홍경을 등장시킨 것은 춘향전의 여사 출도 대목을 모방한 것이라고 했다.³⁰⁾ 그러나 많은 노론계 인사들 중 김홍경을 선택한 것은 노론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와 더불어 그가 1706년 실제 여사로 임명된 사실이 있다는 점³¹⁾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보고성과 사실성을 지향하는 작가가 특정 인물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려다 보니 차마 인물을 직접적으로 노출하지도, 그렇다고 삭제하지도 못해 사실과 가까운 활동을 한 인물을 끌어들이는 대안을 모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2장의 서사 단락을 통해서는 <김씨남정기>가 사건의 확대와 사실성 부여에 관심이 있음을 확인했고, 3장에서는 <김씨남정기>가 인물, 배경 등을 통해 재현성과 더불어 보고성을 강화하려 한 측면이 있음

30) 이명학(1989), 앞의 논문, 33쪽.

31) 연구에 따르면 김홍경은 숙종 32년인 1706년 충청도를 감찰하는 여사직을 수행했다고 한다.(이명학(1989), 위의 논문, 32~33쪽.)

을 검토했다. 선행연구에서는 〈김씨남정기〉의 이런 특징에 대해, 이야기가 장황하고 단순하며 긴장감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³²⁾ 그러나 〈김씨남정기〉의 꼼꼼한 기록과 보고적 글쓰기 덕분에 김 씨가 얼마나 오랜 기간 고통을 겪고, 인내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는지, 또 법을 통한 사건의 해결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난하면서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난한 과정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재현의 결합은 독자들이 인물의 고통에 공감하기를 바라는 〈김씨남정기〉 작자가 선택한 하나의 글쓰기 방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의의-사실과 허구가 결합된 광의의 실기 쓰기

이제 실사를 기반으로 하면서 사건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재현을 동반하고, 또 일부분 실제와 다른 변이를 추구한, 사실과 허구가 결합된 〈김씨남정기〉의 글쓰기가 추구한 방향성은 무엇인지, 또 이러한 글쓰기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려 한다.

조선 후기 들어 신분 질서의 혼란이 더욱 강화되고 주노 간 갈등도 두드러지게 되었다.³³⁾ 조선 후기 지식인들은 이런 신분 갈등이 생긴 사회 문제를 문학작품, 특히 야담의 형식으로 많이 창작했으며 작자를 알 수 없는 소설도 등장했다. 조선 전기에는 추노담을 하나의 본격적인 이야기로 형

32) 이명학(1989), 위의 논문, 31쪽.

33) 노비의 도망이나 추노가 조선 전기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추노담이 형성될 만한 배경이 조선 후기에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정준식, 「추노담의 형성배경 연구」, 『한국문학논총』 21, 한국문화회, 1997, 143~163쪽 참조) 노비의 도망과 추노가 사회적 문제로 대폭 확대된 것은 조선 후기라고 할 수 있다.(전형택, 「조선후기 사노비의 추쇄」, 『역사학연구』 6, 호남사학회, 1999, 35~70쪽 참조.)

성, 전승시킬 만한 문학적 토대가 없었다면, 조선 후기 들어 추노와 그에 얽힌 이야기를 사실의 보고로서만이 아니라 문체적이면서도 흥미로운 하나의 이야기로 향유할 만한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17세기 들어 추노담의 초기적 모습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이 개인의 문집에 등장하였고, 18세기에는 실사에 근거한 전 작품들이 나왔으며, 19세기에는 추노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창작되었다.³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선행연구자들은 〈김씨남정기〉를 소설로 규정하려 했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것과 같이 〈김씨남정기〉는 재현성과 보고성이 동반 강화된 글쓰기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보고를 통해 제시되는 각 사건의 결구(結構) 양상 또한 다소 느슨하게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험적 사실로 기술되어 있다.³⁵⁾ 따라서 작품의 글쓰기 방식과 기술된 내용들을 근거로 할 때 〈김씨남정기〉는 실기류(實記類)를 지향하는 글쓰기를 했다고 생각한다. 〈김씨남정기〉를 추노계 단편이 전에서 소설로 이어지는 문학사의 변화 과정에 존재하는 작품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작품이 형성된 시기 짐작과도 관련이 있는데, 〈김씨남정기〉의 마지막 필사면에 “신미 7월 25일”에 썼다는 기록이 있다. 이 신미년은 작중인물이자 실존 인물인 김홍경이 재상의 자리에 올랐다는 작품 내 기록으로 인해 1732년 이상으로 올려 잡을 수 없으므로, 1751년 이후의 어느 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동시에, 실사에서 전과 야담 그리고 소설로 이어지는 추노 관련 서사의 변천을 고려할 때, 〈김씨남정기〉는 전이 소설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늦어도 1751년 이전에 창작된 작품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김 씨 부부 관련 사건이 〈김씨전〉을 통해 알려진 게 1714

34) 정준식(1997), 위의 논문, 154~161쪽 참조.

35) 실기 〈섭란사적〉과 소설 〈최척전〉을 살핀 연구에서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독립된 이야기들이 특별한 연계 없이 경험적 사실처럼 기술된 것을 실기와 소설의 주요 차이점으로 지적했다.(정환국, 「17세기 실기류와 소설의 거리-전후 소설사의 흐름과 관련하여」, 『한문학보』 7, 우리한문학회, 2002, 110쪽 참조.)

년이므로, 사건이 발생하고 해결된 시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때에 김 씨 부부 사건에 대한 꼼꼼한 보고적 서술, 즉 실기 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³⁶⁾

문학사에서 실기가 다수 저작된 주요 계기로 꼽는 것은 임진왜란이다. 조선 개국 이후 처음 접한 국가적, 민족적, 개인적 수난으로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전쟁의 참상을 어떠한 방식이든 구체화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지향적 성격의 실기가 다수 저작되었다.³⁷⁾ 임진왜란은 문학의 모든 양식, 즉 소설, 전, 실기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야기 되었는데, 그 중 실기는 각자가 보고, 듣고, 느낀 바를 바탕으로 해서 전쟁의 참상이나 충정의 마음, 인간애 등을 드러냈다.³⁸⁾ 이처럼 실기류 창작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전란이지만 “실존 인물이 역사의 현장에서 직접 겪은 체험의 실상을 기록, 표현한 것으로 역사와 같은 사실지향적인 서술태도를 보이면서도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생체험 중심의 기록문학”³⁹⁾이 실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김 씨의 체험도 충분히 실기적 글쓰기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기를 협의(狹義)의 실기와 광의(廣義)의 실기로 나눌 때, 체험 당사자가 직접 서술한 것은 협의의 실기로, 그렇지 않은 것은 광의의 실기로 구분한다. 광의의 실기류는 후대인들이 피전자(被傳者)의 행적을 추술하는 경우가 많아 사적이 과장되거나 허구성을 띠는 경우가 있어, 이성에 호소하

36) 〈김씨전〉과 달리 〈김씨남정기〉에서는 김홍경이라는 노론계 인사가 문제 해결자로 등장하는 점, 여성 주인공이 복수에 적극성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남정기〉가 노론과 소론의 갈등상을 반영한 것일 수 있고, 또 18세기 복수 서사의 빈번한 등장과 퀘를 함께 하며 확장된 이야기일 가능성도 있다.

37) 이채연, 「실기의 문학적 특징」, 『한국문학논총』 15, 한국문화회, 1994, 51~52쪽.

38) 장경남, 「임란 실기문학과 전의 관련양상」, 『고소설연구』 6, 한국고소설학회, 1998, 381쪽.

39) 이채연(1994), 앞의 논문, 83쪽.

며 보고적이며 공식적인 어법으로 되어 있는 협의의 실기와 구분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⁴⁰⁾ 이를 보면 피전자와 기술자가 다르고, 사건에 관련된 인물이나 시간, 장소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보고하는 서술 방식을 취하면서도 일부분 허구성을 내포하고 있는 <김씨남정기>는 광의의 실기류로 볼 수 있겠다.

실기는 최대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사건의 경과를 자세히 제시하기 위해 기술한다는 기본적 속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충격적이거나 고통스러운 사건을 다루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절절한 심사가 녹아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문학과 역사의 양면성을 띠고 있으면서도 역사와 비교하면 문학적인 표현 방식을 취한, 역사 기록과는 구별되는 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앞서 살펴본 바 <김씨남정기> 또한 이와 같은 글쓰기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서론에서 3장에 이르기까지 <김씨남정기>가 허구성을 추구하는 소설보다는 실사에 기반을 두고 사건을 충실히 보고하는 글쓰기 특징을 보인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이야기 했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사실의 충실한 보고를 지향하면서도 참상에 대한 고발과 독자들의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한 <김씨남정기>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내용을 하나 살핌으로써 <김씨남정기>의 의의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어사의 분부에 따라 먼저 반노의 머리를 때리니 보는 자들이 전율하였다. 불과 열 대 정도를 때렸는데, 피를 토하며 엎드려져 혀를 내밀며 죽었다. 바른 도리를 따르는 사람이 이를 읽으면 어찌 상쾌해 하지 않겠는가. 김 씨가 어사에게 아뢰기를 “저는 평소 복수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 오래도록 칼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적노의 간을 꺼내서 찢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굶주림으로 인해 칼을 팔아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었으니, 바라건대 칼을 하나 받아 한

40) 이채연(1994), 위의 논문, 96~97쪽 참조.

을 풀고 싶습니다.” 어사가 말하였다. “이는 지나치다. 그러나 그 뜻이 가상하니 어찌 들어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며 즉시 칼 하나를 주었다. 그러자 김 씨가 그 칼로 천강, 천명의 배를 갈라 선혈이 낭자한 간을 꺼낸 후 이로 그것을 씹었다. 어사는 차마 그것을 볼 수 없었지만, 좌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거조를 보고는 그 열절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⁴¹⁾

인용문은 박천강 일당에 대한 김 씨의 분노 감정과 복수 행위가 절정에 달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기근이 심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시기에 어린 아들을 이끌고 타지에서 홀로 복수 의지를 불태우다가, 반노들이 장살 되자 기어이 직접 그들의 간을 꺼내 피를 뚝뚝 흘리며 씹는 김 씨의 모습은 매우 괴기스럽지만 김 씨의 입장에 공감하는 독자들에게 통쾌함을 안겨주는 지점이었을 것이다. 어사가 죄인들을 심하게 고문하고 매 열 번을 때리자 반노가 피를 토하며 혀를 뺨 채 죽는 장면을 서술한 후, “바른 도리를 따르는 사람이 이를 읽으면 어찌 상쾌해 하지 않겠는가.”라며 독자들이 마땅히 공감할 것이라고 작자가 언급한 것을 보면, 고난에 고난을 거듭하며 마음 졸이던 김 씨가 칼을 들어 원수의 간을 꺼내 씹는 직접 복수 장면은 더 극적이고 충격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선행 연구에서는 장면 묘사적, 재현적 서술을 통한 생동감 확대⁴²⁾의 한 예로 보았는데, 재현을 통해 서사적 진실성을 확보하는 것 이상의 강한 인상을 남기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김 씨가 박천강 등의 간을 꺼내어 씹었는가 여부를 떠나 그것을 글로 표현함으로써 극한의 분노를 표출하고 통쾌함이라는

41) “執杖卒承其分付 以酷杖先打頭骨 見者莫不戰慄 不過十度 吐血而仆 垂舌而死 使有秉彝之心者讀至於 豈不快哉 豈勝不哉 金氏言於御史曰 小女素抱復讐之志 久佩短刀欲割賊奴之肝 以塗一口矣 緣於累飢 賣而食之 願賜一刃 以至恨如何 御史曰 此誠過矣 然其志可尚 吾何不聽 卽賜一刃 金氏以其刃割天江天明之腹 出其肝 鮮血淋漓 齒以喫之 御史猶不忍見 左右諸人壯其舉 而莫不聳身語其烈 而莫不繫節” (〈김씨남정기〉, 61쪽.)

42) 이현홍(1994), 앞의 논문, 189쪽.

공통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그럼으로써 실기류가 지향하는 “한 개인의 절박하고도 처절한 경험세계를”⁴³⁾ 드러내고 치유하는 효과를 얻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여기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김씨남정기>가 위와 같이 극단적인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는 글쓰기를 통해서만 공감과 치유를 도모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원수의 간을 꺼내 씹는 것이 가장 극적인 복수의 완성일 수는 있으나, 그러한 최종 결말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마다 김 씨의 고난에 공감하고 도움을 주는 손길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한 것 또한 의미 있는 부분이다. 영광, 고부 등에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김 씨가 하소연하기 위해 전주 감영으로 떠날 때 남편 황동로의 벗 이행관이 노복과 말을 내어 주고, 폭우로 인해 냇물을 건너지 못할 때 담양부사가 김 씨 일행에게 관군을 보내 도움을 준다. 또 전주에서는 김 씨의 사건을 알게 된 기생, 여항인 등이 김 씨의 열행을 칭찬하며 음식으로 부조한다. 황동로의 시신이 발굴된 후 김 씨가 그것을 인계받으러 영광으로 떠날 때는 인근의 부녀자들이 나와 음식을 나누며 위로하고, 영광에서 시신을 찾아 다시 전주로 온 김 씨에게 전주 감사 이해조가 부조를 하며 격려한다.

감사가 분부하여 말하였다. “네 상전의 말을 들으니 사정이 참으로 처참하고, 네 상전의 호소를 보니 굶주림이 매우 심하구나. 비록 충성스러운 노비라 하더라도 이처럼 몹시 고통스러운 날을 당하면 그 충성을 끝까지 지켜 보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누차 살림이 텅 비면 어찌 견마와 같은 충성을 보전할 수 있겠느냐.”하며 쌀 한 포를 내어 주도록 했다. 이에 팽이가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 삼가 그 뜻을 전하였다. 김 씨가 매우 감격하였는데, 마치 결인이 천금을 얻은 것과 같았다.⁴⁴⁾

43) 이채연(1994), 앞의 논문, 82쪽.

44) 監司分付曰 聞汝上典之言 情理慘矣 見汝上典之訴 飢餓甚矣 雖忠奴忠婢若當甚苦之日 難得其消埃之報 況值屢空之餘 安保其狗馬之誠 出一苞米給之 彭伊

위의 인용문은 2차 남정을 떠난 김 씨가 굶주림으로 고통받다가 감사에게 도움을 받는 상황을 서술한 것이다. 김 씨가 쌀 한 포를 얻은 후 걸인이 천금을 얻은 것처럼 감격했다는 위의 기록은, 남정 길에 겪은 김 씨의 고통을 잘 보여준다. 동시에 김 씨가 어려움을 감내하며 3차까지 남정을 지속하고 그 결과 악인들을 처벌하고 원수를 갚는 결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노비의 굶주림까지 헤아리며 쌀 한 포를 부조해주는 사람들의 온정이 있었기 때문임을 담아내고 있다. 소소한 일화의 사실 여부를 엄격히 판별할 수는 없지만, 살인사건 해결 서술에만 집중한다면 무시해도 될 만한 이런 내용이 합쳐져서 역사성과 문학성이 결합된 광의의 실기 글쓰기 한 편이 완성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씨남정기〉는 추노계 단편이 설화, 전, 실기, 소설 등으로 기술되고 변화되는 한 양상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씨남정기〉의 글쓰기 특징과 지향하는 글쓰기는 무엇에 가까운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피는 데 초점을 두었으므로 〈김씨남정기〉가 사실과 허구가 결합된 광의의 실기류 글쓰기에 가깝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에 머물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하지 못했지만 노비 추쇄를 다룬 전반부에 비해 살인사건 해결과 복수를 다룬 후반부가 더 확장된 〈김씨남정기〉의 특징에 주목한다면, 18세기 이후 유행한 복수 서사와의 관계성 속에서 〈김씨남정기〉의 새로운 의의를 탐색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관하여는 후속 연구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⁴⁵⁾

持而飯 謹致其意 金氏不勝感激 恍如乞兒之得千金也.(〈김씨남정기〉, 34쪽.)

45) 토론과 심사를 통해 조언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 권이진, 『유회당집(有懷堂集)』 권11, 12.
권이진, 『국역 유회당집』 3권, 안동권씨유회당과중중, 2006, 1~471쪽.
채제공, 『번암집(樊巖集)』 권42.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월인, 1999, 1~490쪽.
〈김씨남정기〉, 부산대학교 도서관 쌍매당문고 필사본.
- 김경숙, 「17-18세기 초 사대부가 여성의 청원, 소송 활동」, 『여성과 역사』 35, 한국여성사학회, 2021, 143~179쪽.
김현진, 「復讐 殺人事件을 통해 본 朝鮮後期の 社會相」, 『역사민속학』 26, 역사민속학회, 2008, 107~140쪽.
이명학, 「〈김씨남정기〉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2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9, 29~37쪽.
이채연, 「실기의 문학적 특징」, 『한국문학논총』 15, 한국문학회, 1994, 81~109쪽.
이현홍, 「신분갈등형 송사의 서사적 양상과 의미」, 『동양한문학연구』 8, 동양한문학회, 1994, 171~232쪽.
장경남, 「임란 실기문학과 전의 관련양상」, 『고소설연구』 6, 한국고소설학회, 1998, 381~412쪽.
전형택, 「조선후기 사노비의 추쇄」, 『역사학연구』 6, 호남사학회, 1999, 35~70쪽.
정준식, 「주노갈등-복수의 서사적 양상과 의미」, 『국어국문학』 32,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95, 21~48쪽.
_____, 「추노담의 형성배경 연구」, 『한국문학논총』 21, 한국문학회, 1997, 143~163쪽.
정준식·이현홍, 「'복수설 유형'의 전승양상과 소설적 변용」, 『한국문학논총』 38, 한국문학회, 2004, 113~141쪽.
정환국, 「17세기 실기류와 소설의 거리-전후 소설사의 흐름과 관련하여」, 『한문학보』 7, 우리한문학회, 2002, 101~128쪽.
- 『전라남도영광군지도읍지』,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 <https://kyudb.snu.ac.kr/main.do>, 접속일자: 2025.12.12.
『승정원일기』, <https://sjw.history.go.kr/main.do>, 접속일자: 2026.01.05.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the Writing of
KimSsiNamjeonggi

Hur, Soon-woo & Liu, Dong-li

KimSsiNamjeonggi is a late-Joseon prose work grounded in an actual case from eighteenth-century Korea. The text narrates the prolonged legal struggle of Kim, whose husband was murdered by enslaved persons during his pursuit of runaway slaves. Despite reporting the perpetrators to the authorities, Kim faced repeated delays in judicial proceedings and undertook three arduous journeys over eight to nine years to seek resolution. The work provides a detailed record of both her household's hardships and the conduct of the officials involved.

In comparison to *KimSsiJeon*, which offers a concise account of the same case, *KimSsiNamjeonggi* significantly expands the narrative. While previous scholarship has emphasized its vivid portrayal and representational fidelity, classifying it as a fictional narrative, this study argues for a more nuanced understand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narrative units in both texts reveals that *KimSsiNamjeonggi* strengthens not only factual reportoriality but also its silgi(實記) like qualities, aiming to produce a broadly defined factual narrative rather than pure fiction.

Furthermore, the text seeks to foster empathetic engagement with Kim's suffering and pursuit of vengeance, while its depiction of minor yet emotionally resonant figures enhances the narrative's depth and humanistic appeal. By reinforcing both representational fidelity and reportorial detail while incorporating selective fictional elements, *KimSsiNamjeonggi* demonstrates a hybrid literary strategy that elicits both understanding and affective response from readers.

Key Words actual case, pursuit of runaway slaves, murder case, representational fidelity, fictional narrative, factual reportoriality, silgi, understanding

논문투고일: 2026.01.17.
심사완료일: 2026.02.03.
게재확정일: 2026.02.05.